§ 교회목표 §
1. 천국시민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표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수요설교

고통 속에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
(눅 22:39-46)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면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계신 신적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이 수월해 지거나 참을 수 있을 만큼 적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레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1.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마 2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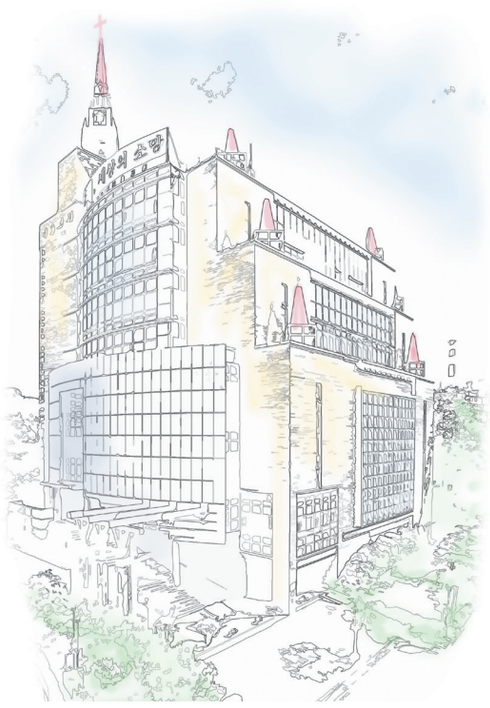
예수님도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눅 22:43).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2. 믿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피곤하여 깜빡 잠이 들어버린 제자들을 보시고 답답해 하셨습니다(마 26:40-41).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 달라고 주님께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점점 더 커지면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해질 터이고, 기도가 강력해지면 더 오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3.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세 번에 걸쳐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점점 더 아버지의 뜻을 깊이 알게 됩니다(마 26:39).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 끝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깊이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의지에 갇혀서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마저 자신의 신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히 5:7).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직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Joyful Song that We Sing in Suffering
(Luke 22:39-46)

Jesus worried and felt sorrow before his death on the cross. Because Jesus is God and concurrently a man, he knows the coming resurrection of glory after suffering on the cross. However, he knew in advance his suffering wasn't easy and he must endure as much as he can.

By meditating the appearance of Jesus praying on the Mt. Gethsemane, we can spiritually learn three lessons.

1. We need co-workers to pray together

"Then he said to them,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Stay here and keep watch with me'" (mat 26:38).

Jesus needs his co-workers to pray together. If we have true co-workers to pray, there aren't more wonderful blessings than that.

:An angel from heaven appeared to him and strengthened him" (Luke 22:43).

Though we cannot look at angels with our eyes, they help us pray. The spirit helps us pray. Jesus Christ hears our prayer while sitting in the right hand of God's throne.

2. You must watch and pray with faith

Even though Jesus told his disciples to pray together, he found them sleeping and felt pitiful for them (Matt 26:40-41). We are the people who are weak in our faith. Therefore, we have to ask Jesus to strengthen our faith. The bigger our faith is, the stronger the prayer is, and when the prayer becomes stronger, we can pray without ceasing.

3. We must pray to God and ask his will

When Jesus prayed third times on the Mt. Gethsemane, He learned the will of Father more and more deeply (Mat 26:39). The will of Father is that Jesus must bear the cross. The reason is that without drinking the suffering cup of cross, he cannot save mankind.

Jesus always confessed at the end of his prayer,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My beloved Christians,

Though we pray God by be confined my too much deep thinking, belief, will, we do not ask God's will, but sometimes we want to change God's will into our belief. Jesus offered his prayers with fervent cries, tears, entreaty, and hope while he prayed to accomplish God's wills (Heb 5:7). We must also have this kind of prayer.

By meditating on the moment of Jesus Christ's prayer on Mt. Gethsemane deeply,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a blessed people to take a victory with pray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6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본선 금주 금요일

2016년도 성경암송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8장, 요한일서 4장이다. 이상 세 장 중에서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암송해야 한다. 암송시간은 히 11장(5분), 롬 8장(4분), 요일 4장(3분) 총 12분으로 제한한다. **오늘까지 교육위원회 소속 부서**들은 **서기 김광태 집사에게**, **일반 장년 성도**들은 **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장년부는 예선이 없으므로 10월 9일까지 사무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본선 당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 본선은 10월 14일(금) 오후 7시 6층에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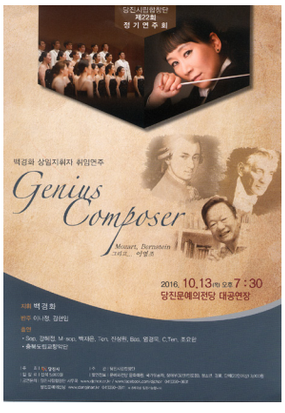
이단의 침투 심각하다

이단의 침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9월 28일 오전 수요1부예배 후 구원파 이단들이 교회 안을 다니며 구원파 세미나를 홍보하고 부목사실까지 들어오려 시도하다가 제지 당하였다. 이에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①~⑤ 1층, 9층, 8층, 5층 부목사실, 5층 목양실 앞에서 찍힌 구원파 이단들

백경화 권사 당진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취임연주

10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당진 문예의 전당 대공연장



우리교회 1부 찬양대인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 최형열 장로) 지휘자인 백경화권사(4교구, 당진시립예술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당진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상임지휘자 취임연주를 10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당진 문예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갖는다. 교회에서 오후 4시 버스출발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서경학 집사 (010-3715-0182)에게 하기 바란다.

이종윤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자기 자신을 넘어서 생각하라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인 교리가 인간론이다. 인본주의는 세속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다. 세속주의는 우주로부터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모든 것의 잣대(Man, the measure of all things)"라고 말했다. 인간이 규범이므로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 평가된다. 인간이 궁극적인 권위자이고 인간을 신성화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파멸로 이끌 뿐이다.

1.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게 있을 경우에만 남을 돌본다. 이것이 물질주의이고 실용주의이다. 인간의 성품은 자기 발견에 실패한 원시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978년에 마가렛 할시는 Newsweek Magazine에 실린 'What's wrong with Me, Me, Me?' 라는 제하의 글에서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성품은 없고 자기 발견에 실패한 원시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What's wrong with me?)라고 질문한다고 했다. 자기 발견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과 관계를 이루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비인격적이다. 이웃, 가족, 친구와의 관계도 경쟁과 적대와 두려움의 대상이다.

2. 그리스도인의 인간관

인본주의자들의 보는 인간보다 그리스도인의 인간론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인본주의자들의 인간관보다 훨씬 더 나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 창세기 1:26-27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하나님의 형상대로' 라고 반복 강조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왜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하나? 다른 생명을 낮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격성(Personality)

인간은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졌다. 인격이 있는 사람은 지식과 기억과 느낌과 의지가 있다. 그러나 동물에겐 창의성과 사랑과 예배가 없다.

도덕성(Morality)

하나님은 도덕적이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한다. 이것은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처럼 절대적이지 않다. 한정된 자유가 있을 뿐이다. 그나마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오용하므로 죄를 짓고 결과적으로 의를 상실했다. 인간에게는 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영성(Spirituality)

인간에게 영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고로 인간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보다 더 위대한 피조물은 없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1조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인본주의는 성경의 인간에 비교할 수 없다.

(다음 주 계속)

순례자는 서울교회의 역사입니다

최근 주일 강단에서 연이어 순례자에 관해 발행인을 배제한다, 발행인의 요구를 묵살한다, 발행인보다 더 높은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등의 광고를 하는 담임목사님을 보며 편집팀 모두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 순례자 1288호 3면 기사에 대해 싣지 말거나 호외로 발행하라는 담임목사님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것은 결코 부장과 합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부장은 지도목사님과 편집위원들이 함께 편집회의 중 편집방향을 제시할 뿐 독단적으로 기사의 내용을 좌지우지 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4일자 순례자 1285호에서도 밝힌 것처럼 순례자는 지금 교회의 소식지와 전도지 역할에 앞서 교회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거짓 소문을 바로잡는 일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회복하는 일을 위해 해야 할 순례자의 현재적 사명입니다. 순례자의 기사는 후대에까지 남겨질 서울교회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부끄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부분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순례자는 사실이 아니거나 신앙양심에 거리끼는 기사는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5년간 묵묵히 성도님들 곁을 지켜온 순례자가 한 순간 특정 부류의 공공의 적이 되어 주일이면 쓰레기통 이곳저곳에서 뭉치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찌라시로 배포하지 마시고 순례자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에 원고를 보내주시면 편집팀에서 사실 확인 후 신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서울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이 아픔을 잘 이겨내고 예배의 기쁨이 있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홍일성 장로 (출판국 순례자 부장)

다음세대가 궐기하는 이유!

이민호 집사 (12교구)

서울교회 다음세대 모임인 사서함(사랑하는 서울교회와 함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지난 5월부터 기도모임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젊은이의 순수한 신앙양심으로 우리 교회의 문제발생 원인(이슈)을 찾고자 사건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박노철목사, 양 진영의 장로, 권사, 집사, 성도를 비롯해 우리 교회의 많은 전·현직 전담 사역자들, 교회 밖으로도 노회와 총회의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신학대학교 교수님, 목사님 등등. 서울교회의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기 위하여 실 오르라기 하나하나를 찾고 풀어낸다는 열정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지난 8월말부터 주제(이슈)별로 하나씩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네이버 “사서함 밴드” 검색].

사서함은 박노철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작업을 하나하나 진행하며, 박노철목사의 언행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팩트(fact)들을 축적할 때마다 사서함 임원과 함께 헌신하는 멤버들의 충격과 놀라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컸으며, 이로 인한 다음세대의 분노는 우리를 매우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박노철목사의 거짓과 진실이 적절히 혼합되어 포장된 언행은 박노철목사의 부분적인 모습 밖에 볼 수 없었던 많은 성도들의 눈과 귀를 속일 수 가 있었으며, 서울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과 물질 중심의 교회로 변질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식과 능력을 보고 일군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바른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겉모습)를 보고 선택하지 않으시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노철목사 본인 설교 표절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목소리를 덮고 회피하기 위해, 원로목사 표절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 방법도 일부 장로와 교역자들에게 흘리듯 말을 내 뱉고 실수로 이야기했다고 회개 기도하는 실수가 아닌 실수를 위장한 똑같은 위선을 장로와 목사 앞에 반복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목사인가? 배우인가?를 혼동할 지경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의 중심에 서서 성도를 내 편과 네 편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네이버 “사서함 밴드” 검색바랍니다]

그래서 서울교회 다음세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는 서울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박노철목사가 서울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사서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실현되는 서울교회 회복을 위해 박노철목사 퇴진운동을 위한 궐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 혼자 편하자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생활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서지 못하는 박노철목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박노철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알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박노철목사의 잘못을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지, 박노철목사로 인해 구분된 성도 간에 싸우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박노철목사의 잘못은 알지만 조금 더 기회를 주고 돕자는 입장과 이미 많은 기회가 지나갔다는 견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교회 다음세대는 끝까지 궐기할 것입니다.

호산나대학

하나님과 서울교회 성도님께 빚진 자

호산나대학과 대안학교 학부모회는 서울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해마다 실시되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열린바자'에 전학부모들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 열린바자에서는 호산나가 1등을 하자는 거룩한 욕심으로 6월부터 학부모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바자 물품종목도 바꾸고 특히, 아버지들의 도움으로 여느 해 보다 많은 물품들을 기증받았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부모들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태원 보세 가게 등을 조를 나누어 수도 없이 발품을 팔아 '그날'만을 기다렸는데 부학장님으로부터 올해 바자는 '교회사정'으로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모두들 힘이 쫙 빠져서 서로 쳐다보기만 하였습니다. 더욱 난처한 일은 아버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부 받은 물품들은 상품의 가격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주기로 하고 이미 물건을 받아서 학교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기에 아버지들께 바자회가 취소된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 교회의 문제 중 아가페타운을 누군가가 매매하려한다는 말을 들었고 '발달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보내고 싶은 학교' 호산나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에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교회 사정과 부모 심정을 알리 없는 철없는 우리 아이들은 마치 서울대학이라도 다니는 것처럼 졸업 후 노인요양병원에, 스타벅스에, kbs 방송국과 도서관, 서울교회 사무국 등에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선포를 하고 다니는데...

부학장님께 여쭈어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뵙기보다는 부학장님께서 목사님께 학부모들의 고민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알려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얼마 후 부학장님께서 "비록 교회가 시끄럽지만 절대로 그럴 일은 0%도 없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모두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후 아가페타운에서 준비한 물품과 기증받은 물품으로 바자를 열어 총 237만원의 수익금을 냈고 전액 학교에 기부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하루 실시한 바자수익금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라 모두들 '할렐루야, 아멘'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2017년에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서울교회의 '이웃사랑 열린바자'가 원래의 모습으로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서울교회 성도님께 빚진 자인
호산나대학 부모회 일동

특 별 찬 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호산나 찬양대(대장:강신행 권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구민영 집사의 지휘로 "셀틱 글로리아 (K.Shaw 곡)", "놀라운 은혜 (J.A.Shafferman 편곡)", "하나님의 어린 양 (J.W.Harris 편곡)", "시온성과 같은 교회 (F.J.Haydn 곡)"를 찬양하며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집사, 피아니스트 홍혜란 집사 그리고 바이올린에 오소현 선생 조은서 선생, 비올라에 김원 선생, 첼로에 방도현 선생이 함께 연주한다.

B.M.W.운동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3일(목)-14일(금)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통일실천교회지도자모임의 개회설교를 한다. 지난주 6일(목)에 16회 한국군선교신학회 기조연설, 13회군선교신학논문공모작 시상식, 군선교신학 논문집(14,15호) 출판,발간을 하는 관계로 지도자 모임이 이번주로 연기되었다.

■ 연주회 : 신모란 집사(15교구), 제13회 벨라보체 음악회, 10월 11일(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주일식당봉사 : 뵈뵈 전도회 (10. 9)
루디아 전도회, 도르가 전도회 (10. 16)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10월 14일(금) 성경암송대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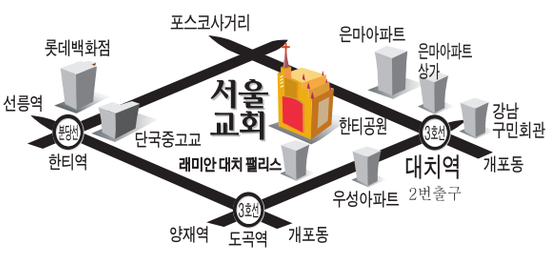
2.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3.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Ⅲ,Ⅳ 층
	Ⅱ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Ⅱ,Ⅲ 층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Ⅱ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